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 고용시장 한파 심화

경충, 고용 흐름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지난해 4분기 신규채용 12만2000명 감소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세

6개월 사이 채용 계획 인원도 지속 줄어

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채용이 7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채용 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안정 등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고용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감소 규모는 12만2000명에 달했다.

또한 기업이 향후 6개월 사이에 채용을 계획하는 인원(채용 계획 인원) 역시 2023년 이후 감소세다.

특히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대졸자(19만5000명) 중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3만6000명)보다 시험, 자격증, 학원 통학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4만9000명)가 더 많았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규모는 137만3000명에 달해 2023년보다 8.4% 증가했

< 표 1. 최근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근속 3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속 3~12개월 미만	근속 1년 이상
2023.1q	40.7만명	2.3만명	-7.7만명	46.2만명
2023.2q	29.5만명	-14.9만명	-7.0만명	51.5만명
2023.3q	24.9만명	-10.8만명	-16.6만명	52.3만명
2023.4q	35.6만명	-0.7만명	-17.8만명	54.1만명
2024.1q	32.6만명	-11.4만명	-8.4만명	52.4만명
2024.2q	25.9만명	-11.8만명	-3.8만명	41.5만명
2024.3q	20.1만명	-8.2만명	-4.7만명	33.0만명
2024.4q	7.3만명	-12.2만명	-14.8만명	34.3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반면 초단시간 일자리는 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40만명을 넘어섰다. 채용 시장 한파로 안정적 일자리 대신 초단시간 일자리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고용 서비스 및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5월 황금연휴 전국 15개 공항에 280만명 몰린다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 140만명 전망

국내선, 김포 1일, 김해·제주공항 2일 가장 붐벼

인천공항, 이달 30일~내달 6일 '148만2274명' 예상

5월 황금연휴 김포와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140만명으로 예상되면서, 이기간 인천공항까지 전국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288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연휴는 1일 근로자의날과 주말(3~4일),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5일), 대체휴일(6일)까지 최대 일주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기간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총 항공편수는 8043편으로 이용객은 140만명(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은 김포공항 1일,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2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은 김포공항 4일과 5일, 김해공항 3일, 제주공항은 2일

에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공항별 필수시설, 수속시설, 여객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장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따른 체객 발생에 대비해 지원물품과 숙박과 교통수단 안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전국공항의 주차장 혼잡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1988면, 청주공항 1217면, 제주공항 1100면 등 6047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총 2만9936면의 주차장을 운영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공항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라남도도는 올해 1분기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1억 7천916만 달러를 기록,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과 신선 농산물, 음료 수출 호조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수출이 1억 2천51만 달러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21.3% 늘었다. 이 가운데 김은 9천540만 달러로, 단일 품목으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김은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984만 달러로 55%

전남 농수산물, 글로벌 시장서 인기몰이

1분기 수출액 1억7천916만달러로 전년보다 15.4% 증가

미국 관세장벽 불구 김·음료·유자차 등 수출 39.6% 늘어

증가했다. 대표 품목은 쌀, 배, 파프리카, 키위 등이다. 배는 대만으로, 키위는 일본으로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각각 51.4%, 1천992% 증가했다.

음료는 963만 달러다. 배·유자음료 등 과일주스를 중심으로 64.7% 늘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전남 농수산물 수출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미국 수출은 김, 음료, 유자차를 중심으로 39.6%나 증가했다.

중국은 김, 분유, 오리멸을 중심으로, 일본은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6%, 1.1% 늘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3천124만 달러로

43.5% 증가하며 농수산물품 수출 1위를 기록했다.

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고흥군 2천960만 달러(12.5% 증가), 신안군 2천655만 달러(22.6% 증가) 순이었다.

신현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김과 음료를 중심으로 한 전남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에 주력해 수출 성장을 지속시켜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작년 장애인고용률 3.21%… “민간기업이 증가세 견인”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2023년) 대비 0.04%포인트(p) 상승한 평균 3.2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7331명 늘어난 29만8654명이었다. 전체 평균 고용률은 3.21%로, 2023년과 비교해 0.04%p 증가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소다.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5.8%,

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3만2692개소 대상 29만8654명 고용… 중증장애인 35.8% 여성 28.7% 차지 민간기업, 법정 의무고용률과 0.07%p차… 역대 최소

28.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 폭이 컸다. 민간부문의 고용인원은 22만2109명으로, 전년 대비 0.04%p 늘어난 3.03%였다.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으며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격차가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 보면 고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체는 500인~999인 사업장으로, 3.47%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어 ▲300인~499인(3.44%) ▲100인~299인(3.39%) ▲1000인 이상(2.97%) ▲대기업집단(2.46%) ▲100인 미만(2.05%) 순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였다. 이는 의무고용률인 3.8%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자체가 5.9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공공기관(4.05%) ▲중앙행정기관(3.36%) ▲한법기관(2.83%) ▲교육청(2.5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부처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한 명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남도, 7월부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미래·첨단 기술창업 중심 청년창업자 150명 5월부터 모집

전라남도도는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창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 첨단 분야 우수기술 창업을 유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지원자(기업)를 5월 28일까지 모집한다.

7월부터 운영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남 벤처창업 3·3·3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우주발사체·바이오·반도체·데이터·이차전지·에너지 등 지역특화 기술 분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대학생과 청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1980년부터 2007년 출생자)으로, 전남 거주자 및 전업 예정자여야 한다.

선정된 이후 16개 대학·출연기관 창업보육센터 창업시설에 입주해야 하며, 사업자(법인) 주소를 해당 창업시설에 신설·이전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이다. 창업 분야별로 우주항공·바이오·인공지능(AI)·데이터·에너지 등 지역특화기술 100명, 농수산물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 등 미래 첨단 분야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발한다. /임채일 기자

